



[산업]
포스트 코로나 맞서는 SK
사회문제·투자동향 제시
06



Life

‘올라인’으로 세대교체
니



야성미 넘치는 육지... 아기자기 바닷속 울릉도 반전매력에 ‘풍덩’

메트로 트래블

6월 초 한국관광학회(정병웅 회장)와 한양대학교 관광연구소(이훈 소장)는 바이러스 프리형(Virus free) 자연 중심의 국내관광지가 자리잡을 것이라고 예측한 가운데, 그에 걸맞는 관광지가 있다. 바로 청정지역 울릉도다.

자리돔, 돌돔, 참돔 등이 다양하게 어우러진 울릉도 바닷속 내수전 지역은 다이빙 동호회간 야간다이빙 포인트로 유명하다.

울릉도 저동리에 있는 내수전 일출전망대는 440m 산봉우리 꼭대기에 위치한다. 전망대에 올라서면 북저바위·섬목·저동항·죽도의 아름다운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고, 산쪽으로는 도동능선·소불알산·장재고개 등을 조망할 수 있어 시원하기 그지없다. 전망대 면적은 약 70㎡로, 바닥과 난간 모두 목재로 만들어져 있으며 망원경 시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내수전 일출전망대 입구부터 북면 석포까지 이어진 편도 2시간 정도 산길은 울릉도 최고 트레킹 코스로 추천하는 길이다.

내수전 전망대 주변 관광지로는 관해정·내수전 약수터·내수전 몽돌 해변·정매화곡 쉼터·춧대바위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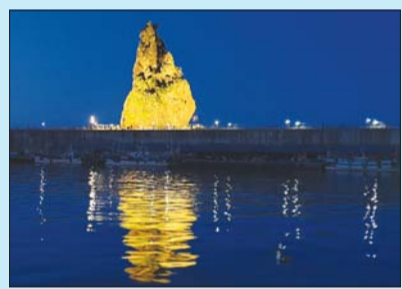
울릉도는 바다와 기암괴석으로 둘러싸인 산책로를 따라 걷는 시원함, 원시 그대로의 자연과 청정 지역에서 채취한 재료로 한 다양한 먹거리, 곳곳에 자연이 빛을 동굴들이 형성돼 있어 여행객들에게 특별한 경관을 선물한다. 그중 바위모습이 코끼리를 닮은 코끼리바위는 바위에 구멍이 있어 공암이라고 불린다.

울릉도는 또한 음식이 풍요로운 지역이다. 최근 울릉군은 울릉도에서만 맛볼수 있는 음식 7가지를 소개했다. 울릉도만의 시그니처 메뉴 7가지는 콩치물회, 따개비 밥·칼국수, 홍합밥, 오징어 내장탕, 활어회, 산채비빔밥, 약소불고기다. 행남 해안산책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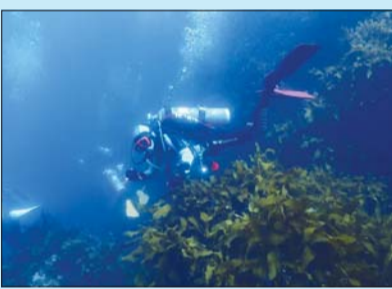


울릉도 죽도.

/헤이다이비스



울릉도 춧대바위.



울릉도에서 클린활동 중인 헤이다이비스 회원들.

바다·기암괴석 둘러싼 산책로 절벽·동굴 등 자연 느낄 수 있어

아기자기 협곡·숨겨진 절경 울릉도 다이빙 포인트 인기

울릉도 도동항에서 저동 춧대바위까지 이어진 약 2.6km 산책로다. 깎아지른 절벽과 기이한 바위 절경을 감상할 수 있고 산책로가 정비돼 있어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고 힐링할 수 있는 포인트다.

안전한 여행문화를 모토로한 국내·섬여행 전문 나라여행(대표 최종성)은 언택트시대 울릉도 목호출발 특가 상품을 12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대한민국 전체 여행이 주춤한 시기에 울릉도, 제주도, 백령도, 제주도 등 섬여행은 비대면, 소그룹, 나만의 가족 여행으로 가기 제격이다.

최근 국내·섬 전문 여행사로 콘셉트를 바꾼 나라여행 최종성 사장은 “울릉도는 코로나 확진자가 없는 깨끗한 지역이다. 강원도 목호에서 배가 출발하는데, 탑승시 열·위생점검 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오는 7월 19일

까지 20만원 중반대 2박 3일 특가 상품을 내놔 소비자들의 반응을 지켜보고있다. 기존 패키지여행과는 다른 소그룹 위주의 테마여행을 이끌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최근 울릉도·독도로 바닷속 클린상태 답사를 다녀온 스쿠버 동호회 헤이다이비스 류은지 회원은 “울릉도는 예로부터 입도 자체가 힘들고 성인봉을 중심으로 웅장한 지형 때문에 야성미 넘치는 섬으로 인식되는 지역이다. 그런 육지의 매력과는 정반대로 바닷속 모습은 정반대의 매력을 보여준다”며 “모자반과 감태의 아기자기하고 작은 협곡들과 월(wall)의 하모니로 해외의 어떤 곳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곳이다. 울릉도 다이빙 투어는 숨겨진 절경을 찾는 포스트코로나시대 비대면·차별화된 여행이다”고 밝혔다.

/이민희 기자 lhm@metroseoul.co.kr

경북 관광기념품 공모 대상에 ‘신라의 품에’

경상북도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대상·금상 등 수상작 39점 발표

경상북도는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 관광기념품을 발굴하기 위한 ‘제23회 경상북도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 수상작 39점을 선정·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23회째를 맞은 ‘경상북도 관광기념품 공모전’은 지난 5월 21~25일 까지 5일간 총 137점의 일반상품과 아이디어를 접수했다.

경북도는 각계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위원장 최옥희 동국대학교수)를 통한 심사결과 일반상품 분야에 대상1점, 금상1점, 은상2점, 동상3점, 장려상 7점 등 총 34점의 입상작을 선정하여 대상500만원, 금상 300만원 은상 각 200만원, 동상 각100만원, 장려상 각 70만원, 입선 각 30만원의 시상금을 수여하고, 아이디어상 5점에 대해 각30만원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도는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기념품 업체를 위한 지원책으로 특선 이상 수상자 중 공고일 현재 경북도내 주소를 둔 사업자 총 51명에게 생산장려금을 지급하며 상금과 함께 지원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일반상품 분야에서 영예의 대상을 차지한 경주시 김기득(개인)씨의 ‘신라의 품에’는 관광객들이 신라 유적과 유물을 촬영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촬영 기법 중 하나인 줌아웃 효과를 도자기에 표현한 것으로, 침성대, 천마·기마인물상 등 신라시대의 유물들을 메모꽂이, 티백홀더로 제작하였다.

특히 티백홀더는 귀엽고 아기자기하며, 실용적이면서도 가볍게 구매를 유도할 수 있어 심사위원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금상은 경주의 야간관광명소와 화려한 신라시대의 유물을 일러스트화하여 타일에 정교하고, 선명하게 표현한 마그넷(냉장고 자석)으로 경주시 손영숙



대상, 김기득(개인)씨의 ‘신라의 품에’



금상, 손영숙(개인)씨의 ‘정려(精麗)한 신라-정교하고 화려한 보물을 그린다’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국

(개인)씨의 ‘정려(精麗)한 신라-정교하고 화려한 보물을 그린다’가 차지했다.

은상에는 경기도 이준기(개인)씨의 ‘경북, 느끼고 체험하다(부석사 무량수전)’, 경주시 강전환(노즈너리)씨의 ‘경북 사찰 사שה와 선향’이 차지했으며 동상으로 경주시 김동환(가온신라)씨의 ‘경주초룡(침성초룡)’과 대구광역시 김차경(복드림)씨의 ‘당신의 부자나무 ‘석송령’, 경주시 이솔(개인)씨의 ‘DIY 내가 만드는 한복티셔츠!’가 선정되었다.

아이디어분야에서는 경기도 엄영준씨 외 4인의 ‘경북뽕기×꼬꼬레’와 서울시 임한솔씨의 ‘김유신장군을 지키는 열두띠 동물로 알아보는 오늘의 운세 토끼 자판기’등 경북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의 이미지를 활용한 아이디어 총 5점이 뽑혔다.

경북도는 공모전에 선정된 우수한 작품들을 경주 황리단길, 대구 동성로 등 지역 중심거리 특별전시회 개최 및 팝업스토어 운영을 지원하고, 각종 박람회 전시·판매 지원, 경북관광포털사이트 ‘경북나드리’홈페이지 상시 게시 등 다각적인 홍보 마케팅을 할 예정이다.
/이민희 기자

골프·레저 한권에... ‘레저백서2020’ 발간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서천범 소장
국내 레저산업 통계 20번째 출간

2019년 기준으로 국내 골프인구는 470여 만명이고, 골프장 갯수는 535개 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대중제가 330개, 회원제가 169개, 군 관련 골프장이 36개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달 20일 발간된 ‘레저백서 2020’에 소개됐다. 이 책에는 국내 레저산업은 물론 골프, 리조트, 스키장, 콘도미니엄, 테마파크산업의 현황이 통계 위주로 정리돼 있다.

책을 발간한 서천범 소장은 1999년 연구소를 만든 후 ‘레저백서’를 20번째 발간한 국내 레저산업 통계 분야 선두 주자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서천범 소장이



집필한 ‘레저백서 2020’은 레저산업 통계도표가 327개 수록돼 있고, 특히 골프 산업은 본문과 부표를 포함해 250쪽에 달해 레저백서의 핵심부문이다.

서천범 소장은 “레저백서는 젊음을 바쳐 만들어진 책자로 매년 보다 나은 자료를 수록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업체들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애로 사항이 많았다”며 “앞으로 더 내용이 충실한 책자를 만드는 데 정진할 각오”라고 말했다.

507쪽, 25만원

/이민희 기자